2월 2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2월 2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6년래 최저치..다우 1.19%↓ [다우: 7,465.95 (-1.19%)	다우 지수는 2002년 이후 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뉴욕증시가 19일 하락세로 마감. 개장 초엔 반등이 시도됐지만, 실업수당 및 제조업 지수 등 부진한 경기지표들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장중 약세로 돌아섰고, 은행주와 휴렛팩커드를 비롯한 기술주가 급락하며 하락을 주도.
주간 실업수당 3주째 60만건 상회..제조업지표도 심각	하루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의 올 실업률 전망치를 당초 7%대에서 8.5~8.8%까지 상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매우 부진. 개장전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주간실업 신청건수는 62만7,000건에 달했고, 1주 이상 지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7일 마감기준)도 27년래 최대인 498만 건을 기록. 개장후 필라델피아연방은행이 발표한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지수는 전월(-24.3)보다 크게 악화된 마이너스 41.3로 1990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1월 경기선행지수는 2개월째 상승했지만..	컨퍼런스의 2월 경기선행지수는 시장의 예상치(+0.3%)보다 높은 0.4%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앞서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신청건수와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함. 특히 실업수당과 제조업지수 등이 경기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이기 때문에, 1월 경기선행지수가 향후 하향조정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나옴.
미 모기지금리 사상최저 수준 육박	미국의 모기지 기준인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5.16%에서 5.04%로 낮아졌다고 프레디맥이 19일(현지시간) 밝힘. 프레디맥은 1월 중순 4.96%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1년 이후 사상최저치로 떨어졌던 모기지 금리에 바싹 다가서는 수준이라고 평가. 한편 프레디맥은 모기지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이달 초 2.99%에서 이번 주 들어 2.65%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임.
국제유가 14% 급등..배럴당 40弗 육박 [WTI: $39.48 (+$4.86)	국제유가가 14%나 폭등하면서 배럴당 40달러에 육박. 국제유가는 작년 7월 배럴당 147달러 선까지 상승한 이후 글로벌 경기하강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지속, 최근엔 30달러 대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미국의 1월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데다,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뜻밖의 감소세를 보인 점이 재료로 작용,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연출. 이날 美 에너지정보국(EIA)은 지난주(13일 마감기준) 미국의 원유재고가 2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힘.

제목	주요 내용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에 `치명상'	스위스 연방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한스-루돌프 메르츠 대통령은 19일 베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BS가 미국 국세청(IRS)에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힘. 이와 함께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번 조치의 후폭풍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中, 유럽에 대규모 구매사절 파견	중국이 이달중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유럽에 보냄. 21세기경제보도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구매사절단은 24일 출발 예정이며 대상국은 독일, 스위스, 스페인, 영국 등 4개국. 중국은 이번 구매사절단 파견을 중시,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직접 인솔할 가능성이 큼. 중국 상무부는 구매사절단 구성을 위해 관련협회와 기업들과 협의 중이며 자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규모는 100명 이상, 구매금액은 150억 위안(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임.
日 디플레이션 갭 7년만에 최대..20조엔 달해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 경제 내 잠재 공급의 수요 초과분이 4.3%에 달하며 7년래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일본 내각부를 인용,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 글로벌 경기하강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부터 공급이 수요를 0.7% 가량 앞지르기 시작하여, 4분기에는 수출 급감으로 디플레이션 갭이 더욱 크게 확대.
연립주택 8% 상승..아파트의 3.4배	지난해 도시주택 중 연립주택의 가격상승률이 7.9%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상승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남. 2007년 1인당 연간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전년 대비 14.9% 늘어난 45만6천 원에 달했고 살인.강간.절도 등 주요범죄는 19.4% 급증.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4천860만7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0.31% 증가했지만 총가구수는 1.56% 늘어난 1천667만3천 가구로 집계. 통계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2008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
한은 총재 "올해 마이너스 성장 확실..-4%도 가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이성태 한은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거론하며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 또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에 공감을 포명했지만 추경 예산편성으로 인해 늘어나는 적자 국채 발행규모의 상당부분을 한은이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회의적.
첫 공적자금 규모 10조안팎 … 급속한 기업부실에 선제 대응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사용키로 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 정부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금을 늘려 부실채권 매입에 속도를 내고,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의 구조조정 펀드를 활성화하려는 것도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이 늘어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